

참조기 늘리고 할랄로 굴비 살린다

〈무슬림 수출 인증〉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세미나 열어 자원확보 방안 논의

치어 방류 확대·무슬림 수출 추진 ... 영광굴비 활성화

전남도가 영광굴비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참조기 어획량 급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광굴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참조기 치어 방류 등을 통한 굴비 자원 회복에 나서는 한편 무슬림 수출을 위한 할랄 인증 등 해외시장 개척도 추진된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 “지난 24일 영광지역 굴비 생산·가공·유통업 종사 어업인과 전라남도, 영광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참조기 어획량 감소에 따른 원물 가격 상승과 청탁금

지법 시행 이후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굴비업계의 지원 대책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광굴비 가공 유통 현황 및 미래 전략 ▲할랄 인증 방법 및 해외시장 개척 ▲참조기 양식 연구 성과 및 굴비 원료 확보 방안을 토론했고 ▲영광군 굴비업계 지원 방안 및 시책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굴비의 자원이 되는 참조기의 지난해 1만1000t을 어획하는데 그쳐 전년도(2만)에서 9000t(42%)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참조기 가격이 상승하면 서 영세 굴비업체들이 굴비 원료를 구하



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굴비 선물 세트의 판매량은 5075t(780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설에 비해 판매량은 35%, 판매 금액은 420억원으로 줄었다. 원자재난과 판매난이 겹친 것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굴비 자원 회복을 위해 서해특산시험장을 중

심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 영광군과 협력해 치어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참조기 치어(전장 5cm) 2만5000마리와 부세 치어(전장 5cm) 8만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또 최근 영광군 법성면 굴비가공기업 미성영어조합법인에 한국할랄인증원으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받아 중동,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수출길을 열어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권장할 방침이다.

최연수 원장은 “굴비는 영광만이 아니라 전남의 대표 수산자원”이라며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치어 방류는 물론 조기 양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해외 수출을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요트 타고 남도 섬 관광

전남도 2025년까지 마리나 23곳 조성

전남도가 오는 2025년까지 해양레저 관광시설을 갖춘 마리나 23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만간 요트를 타고 전남 섬을 둘러보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항, 완도항, 여수 웅천항, 영산강 주변 나주 영도항(HALAL) 인증을 받아 중동,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수출길을 열어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권장할 방침이다.

최연수 원장은 “굴비는 영광만이 아니라 전남의 대표 수산자원”이라며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치어 방류는 물론 조기 양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해외 수출을 도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구성된 완도 요트계류장은 9척(해상)을 가동할 수 있다.

다음달 중 해상 24척 규모의 ‘비봉마리나’가 개장할 예정이며, ‘광양마리나’는 기본계획 수립 후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요트 마린 실크로드’는 여수 웅천 마리나를 거점으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준비중이다. 이를 통해 목포~완도~보성~여수를 잇는 다도해 절경을 요트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시·군 마리나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계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섬, 해안선, 갯벌 등 전남 비교우위 자산을 활용해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과 동호인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광주 야시장 손님 북적. 광주시 동구 남광주 야시장이 재개장한 가운데 24일 손님들이 풍성한 향토음식과 아시아, 세계 각국의 퓨전 음식을 맛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전남 유치하나

이낙연지사, 천안지역 국회의원·관계자와 면담

전남도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가 나섰다.

전남도는 26일 “이낙연 전남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원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시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이

전 추진에 따른 공통 관심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이 지사 등은 축산자원개발부가 중요 종축보존과 원활한 연구수행이 유리한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은 지난 1934년 이후 전국 육지부에

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조사료 재배 최적지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와 박원주 의원은 현 소재지의 급격한 도시화와 주변 고도산업화로 인한 규제지역 차단방역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종축보존과 가축개량 연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들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검토

용역실시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객관적인 이전 필요성과 이전 조건, 최적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천안시와 전남 지역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채택에도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농진청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충남 천안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가단위 가축개량 총괄 및 돼지, 젖소, 초지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180여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야당-시민사회 민주연립정부 수립해야”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대선에서 야 3당과 시민사회의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대단결과 함께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평화광주회”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과 24일 영암 월출산온천관광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 3당측에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연립정부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연립정부 수립만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길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앞서 2차례 광주에서 개최됐던 ‘새로운 시대 한국의 미래비전

대토론회’ 내용을 정리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의 의미와 탄핵에 대한 입장, 적폐 청산과 개혁 과제, 개헌문제, 대선과 민주연립정부 이슈, 지역 대선공약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대토론회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탄핵 즉각 인용, 특검 연장, 국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입법화, 대선전 개헌 합의 후 대선직후 개헌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다.

김영집 공동집행위원장은 “조만간 토론회 결과 평가와 후속사업 전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토론회 결의 사항을 바탕으로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사항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금품수수 여수시의원·고리사채 광양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금품수수와 고리사채업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숙 여수시의원과 이해경 광양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6월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장 후보 A씨로부터 지부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투표해 A씨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상대 후보에게 투표한 것도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가장 강력한 징

계 처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에 대해 “2015년 7월 3000만원을 빌려주고 18개월 동안 최대 연이율 48%의 이자 1780만원을 받는 고리사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두 의원은 지역 당원들로부터 징계청원서 접수돼 현장 실사와 지역여론을 고려해 제명처분이 내려졌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들이 윤리규범과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종행·김창화기자 gole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예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에이엠 (주)이엠

ENERGY Marketing | www.emsolar.kr